



사진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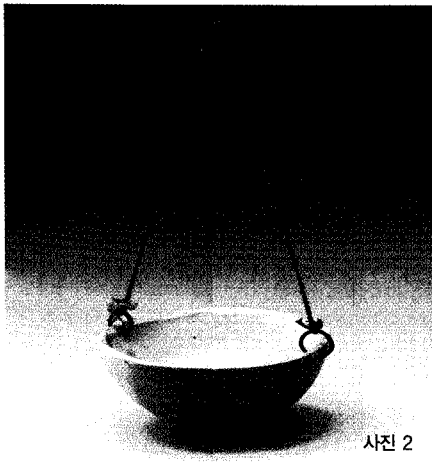


사진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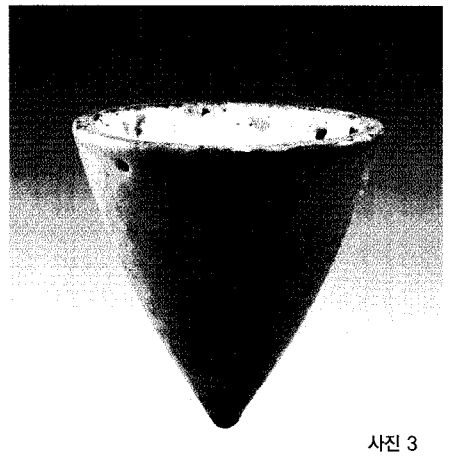


사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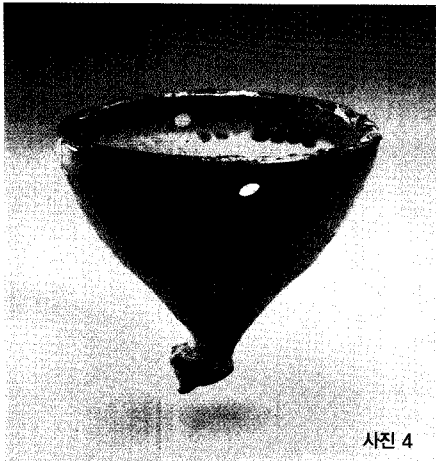


사진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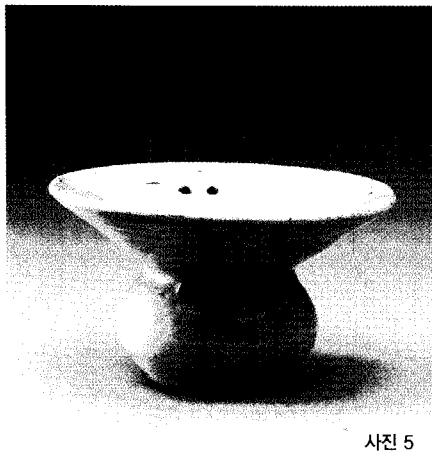


사진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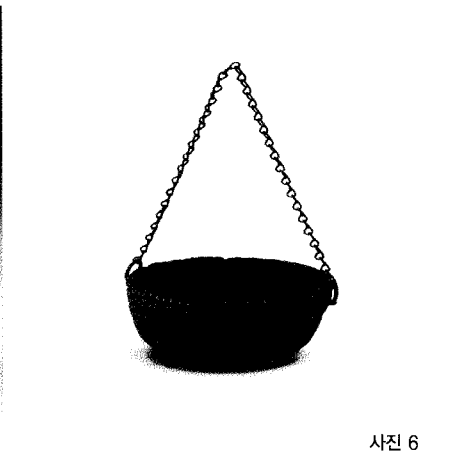


사진 6

##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... ㉓ 기름받이

설명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
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

사진 1) 백자기름받이 조선시대 // 윗지름

7.5cm, 높이 7cm 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 2) 백자기름받이 조선시대 // 윗지름

10.3cm, 높이 6.5cm 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 3) 백자기름받이 조선시대 // 윗지름

9.2cm, 높이 9.9cm 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 4) 백자기름받이 조선시대 // 윗지름

8.7cm, 높이 10cm 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 5) 백자기름받이 조선시대 // 밑지름

4cm, 윗지름 10.4cm, 높이 6.4cm // 국립

민속박물관

사진 6) 지승기름받이 조선시대 // 지름

9cm, 높이 5cm // 국립민속박물관

앞에서 주자형등잔을 소개할 때 등잔의 주구(注口) 부분이 '기름받이'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. 말 그대로 기름받이는 기름을 받는 그릇이며, 주로 종지형등잔과 함께 쓰인다. 종지형등잔은 등잔대 위에 얹거나 걸어서 사용하며, 이때 등잔의 아래쪽에 위쪽 등잔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(기름똥)를 받을 어떤 그릇이 필요하다. 이 그릇이 기름받이이다. 소뿔(牛角)이나 자기(磁器), 도기(陶器), 빚지(紙繩)-종이를 비벼 꼬아서 만든 끈 따위로 만들었으며, 그 형태를 보면 소뿔모양이나 팽이모양, 젓가슴모양, 원뿔모양, 타구(唾具)모양, 향아리모양 등 여러 가지가 있다. 등잔대에 걸거나 매달 수 있도록 그릇 모두 가장자리 양쪽에 2~4개의 구멍을 뚫고, 고리를 달거나 또는 구멍에 바로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.